

CES2024 전북공동관, 다시 한번 재현

도, 지자체 최초 도민보고대회...글로벌 트렌드 공유 참여기업 전시, 혁신상 수상 지원 등 컨설팅 강화 계획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에서 느꼈던 영감을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미래로 향하는 방향성을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하는 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내인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경제위원장, 양오봉 전북대총장, 참여 희망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 및 도내 대학생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ES 2024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 신기술과 혁신 제품 등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내년 CES 2025에서 글로벌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도내 혁신기업과 스타트업들의 지원 및 대학생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그간 CES에 다수의 지자체와 대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참가했지만 도민 보고대회를 개최한 지자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처음으로, 전북공동관 운영의 의미와 글로벌 기술시장의 진출 지원의 의지를 표명하는 핵심적인 행사였다.

행사는 사전 전시장 투어로 시작해 이날 도민 보고대회는 CES에서 나온

대학 LINC공동관 8개), 드론축구 홍보관, CES 이미지 배경 포토존을 이용 후 초청강연, 참가기업 리뷰, 정책제언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업전시관은 CES 2024에서 글로벌시장에 선보인 전북공동관 참가 8개 기업과, 전북지역대학 LINC사업단 기술이전 8개 기업의 K-전북 제품과 서비스, 기술 등을 전시해 도민들에게 직접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초청강연은 실리콘밸리 혁신 미디어 더 밀크 손재권 대표의 ‘CES2024에서 본 파괴적 혁신’과 퓨처디자이너스 최형욱 대표가 ‘CES에서 본 미래: 판의 전환이 가속되다’를 주제로 각각 기조연설을 했다.

참가기업 리뷰는 두산기업의 박성호 두산디지탈이노메이션 팀장이 ‘두산의 디지털혁신’을 주제로 CES에서 전시한 로봇과 스마트 농기계를 소개하

고 캠틡종합기술원 노상흠 원장의 ‘전주에서 라스베이거스로: 드론축구의 여정’에 대해 소개했다.

정책제언에서는 민경중 한국외대 초빙교수가 ‘CES에서 본 전북특별자치도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은 ‘CES 2025 기업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CES 2024 참가와 도민보고대회를 통해 CES가 첨단 미래기술의 장이자 기업들의 경연의 장임을 확인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신산업 생태계 대전환으로 글로벌 생명경제 실현’을 위해 미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도는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CES 2025 참가 성과 극대화를 위해 앞으로 참여기업에 대한 전시 마케팅, 혁신상 수상 지원 등 컨설팅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CES 베네치안 엑스포 전시관내 글로벌 파빌리온에 약 72㎡ 규모로 첫 전북공동관을, 유레카 파크존에 전북대학LINC공동관을 개관해 우수기업(16개)의 신기술 홍보 및 글로벌 시장진출의 기회를 제공했다.

전북공동관에서 운영된 8개 기업은 203건, 100만불의 기업 상담을 진행했으며, 캠틡종합기술원은 유소년 드론축구부 총 69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도내 4개 대학 44명의 교수와 학생이 참여해 미래첨단 기술의 방향을 체크하는 귀중한 경험을 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CES 2024에서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로봇, 에너지 등 분야 세계적인 혁신 기술과 제품을 보고 참관하면서 벽찬 감동을 받았고, 도내 기업들의 지원방안을 고민하게 됐다”며 “이번 도민 보고대회를 통해 도내 기업들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내년도 CES 2025 참가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5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열린 ‘CES 2024’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보고대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등 참석자들이 CES 참가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내년도 CES에서 글로벌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도내 혁신기업과 스타트업, 대학생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경제부지사, 설 맞아 ‘민생현장 속으로’

장수시장 상인 현장의견 청취 · 남원 중소유동물류센터 증축 현장 점검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5일 장수와 남원을 방문해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현장을 살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부지사는 장수군수와 함께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펼침과 더불어 남원 중소유동물류센터 증축 사업부지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장수시장은 장수 읍내에 위치한 5일

장으로 5·10일이 장날이다. 이날 장수시장은 명절 대목을 맞아 물러든 손님과 장꾼들로 북적였다. 김 부지사는 이들과 소통하며 물가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생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김 부지사는 “우리 도는 다함께 민생시책을 통해 민생경기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장 속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명절 뿐 아니라 수시로 전통시장과 같이 민생현장에 방문해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 중소유동물류센터는 남원·임실·순창 등 지리산권의 소상공인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운영 중인 시설로, 지난해 말 증축을 완료해 2월 중 재개장을 앞두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증축 사업의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민생 지원에 중요한 소상공인 물류효과를 청취했다.

김 부지사는 “지속적인 고물가·고금리 경제 상황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실정이다”며, “물류센터 증축 사업부지를 둘러보니 상인과 협동조합이 다함께 민생안정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를 내비쳤다. /김재훈 기자

‘우리 동네 응급 동물병원’ 13개소 설 연휴에도 운영

도, 유실·유기동물 신고 및 구조 보호체계 마련

전북특별자치도는 설 연휴에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프더라도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동물병원’ 13개소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도청 홈페이지 알람창을 누르면 동물병원의 명칭과 병원별 진료가 가능한 날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병원 정보는 도청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공식 누리집(www.mafra.go.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인근 지역을 때돌아 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할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면 바로 시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되고, 시군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한 구조팀의 신속한 구조 및 포획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안전하게 보호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국가동물보호시스템을 통해 신고 접수할 수 있다. 사전에 동물등록을 한 경우 신속한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동물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홍역 의심환자감시 체계 강화

의심환자 내원시 진단검사 및 보건소 즉시 신고 협조 요청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해외유입 관련 홍역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인 검사 등 의료기관의 홍역 감시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홍역 환자 8명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만큼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해외유입 홍역 환자 8명은 모두 개별사례로 집단발생은 없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도민들과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3년 전 세계 홍역 환자는 2022년에 비해 1.6배 증가, 특히 유럽에서만 45배 폭증했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시 발열, 전신에 발진, 구강내 병변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시 90%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평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때 1회,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한다.

국의 홍역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고 접종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는 미리 홍역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최소 출국 4~6주전, 의료기관을 방문해 4주간 간격으로 2회 접종을 받아야 한다. /김재훈 기자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금 농가부담금 640억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상저온,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작년 대비 25% 증액된 640억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11만1,213ha이고, 2만8,000여농가가 보험금 1,430억원을 수령해 이상저온·우박·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았

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45%는 도와 시·군이 부담해 가입농가는 5~20%만 납부를 하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해로부터 농가 경영 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주요 개선사항은 먼저 노지수박, 두릅, 블루베리 품목의 신규 도입이다. 보험상품 운영 설계 완료 후 4월부터 판매 될 예정이며, 주산지 중심으로 판매되던 9개 품목도 전국 확대 판매한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